



나올스나이퍼 VS 드래곤스타...이복형제 매치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 예선경주
추입 강한 너트플레이 다크호스

19일 랫트너파크 서울에서 열리는 제 36회 스포츠서울배(L)는 암수 상관없이 국산 3세마들이 출전해 1400m에서 겨루는 레이시다. 국산 최강 3세마를 선발하는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 시리즈의 예선경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해는 장우열 기수와 승부사가 선행 승부수로 경주 초반부터 끝까지 시원시원한 질주를 펼친 끝에 우승했다.

●나올스나이퍼(수, 한국 3세, 레이팅 61, 승률 57.1%, 복승률 71.4%)
청담도끼의 부마로 유명한 투아너엔 드서브의 자마다. 이번 출전마 중 레이팅이 61로 가장 높다. 1000~1400m 단거리에 출전하다가 3세가 된 올해 2월부터 1800m 장거리에 도전했다. 당시 경주

시작과 동시에 선배 말들을 제치고 선두 자리를 꿰차더니 끝까지 선두를 유지하면서 5마신 차 승리를 거두었다. 지난해 2세마로서 주버나일(2세 최고마 선별 경주) 시리즈 중 브리더스컵(G2) 1400m에 참가했으나, 스피드형 등 부경마들의 기세에 눌려 4위에 그쳤다. 그래도 출전한 경주에서 모두 순위상금을 획득하는 등 꾸준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 **라운더필리티**(임, 한국 3세, 레이팅 54, 승률 50.0%, 복승률 50.0%)

홍행보즈 수표라 불리는 라운가 경주마다. 데뷔 이전부터 큰 기대를 받았지만 데뷔전에서 12두 중 10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올렸다. 그 이후 4위, 6위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다가 지난해 12월 1200m 경주에서 13마신 대와의 승리를 했다. 대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이후 출전한 두 경주에서 연이어 우승했다.

● **자이언트펀치**(수, 한국 3세, 레이팅 42, 승률 33.3%, 복승률 33.3%)

지난해 8월 루키 스테이크스(Rookie Stakes@서울)에서 우승했다. 한 달 후 출전한 문화일보배(L)에서는 경주 전개가 매끄럽지 못해 후반에서 페이스를 시작했지만 결승선 직전주로에서 폭발적인 추임으로 3위까지 올라섰다. 12월 브리더스컵(G2)에서는 16두 중 10위에 그쳤지만, 올해 1월 첫 1800m 장거리에서는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4위로 들어왔다.

●드래곤스타(수, 한국 3세, 레이팅 47, 승률 28.6%, 복승률 42.9%)
투아넨드서브의 자마로 이번엔 출전하는 나울스니아피와 이복형제이다. 71.4%의 높은 연승률을 자랑한다. 대상경주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전과 동시에 각 장 때를 1400m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경주 기대주다. 선입 능력은 물론 막

판 스피드 능력도 뛰어나 중·단거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전한 1400m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하다가 우승했다. 데뷔부터 지금까지 문성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꾸준히 조교를 통해 호흡을 맞추었다.

● **너트플레이**(수, 한국 3세, 레이팅 55, 승률 42.9%, 복승률 57.1%)

1월 29일 서울 6라운드 경주서 짜릿한 역전승을 올린 주인공이다. 당시 10마리 중 7번째로 4코너에 들어섰으나, 결승선 이 50m도 남지 않은 지점부터 위력적인 추임을 보여주며 우승했다. 지난해 12월 경주대역승용마 '석세스토리' 기법 특별경주에서도 진로가 막혀 4코너까지 8~9위에 머물렀지만 뒤쪽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며 기회를 엿보다 틈새를 포착해 파고들어 순식간에 8위에서 1위까지 올라섰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매

스프링초동아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9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경매장에서 열린 예비경주마 경매 현장.

예비경주마 경매 50% 낙찰
최고 낙찰가 1억3000만 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주관으로 14일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경매장에서 열린 올해 첫 2세 국내산마 경매가 50%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6%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상장된 158
마리 중에서 79마리가 새 주인을 찾아갔다. 이날 총 나
צל금액은 28억98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상장 두수가
צל감 감소하면서 소폭 축소했다. 평균 낙찰가는 3700만
원. 이중 최고가는 1억3000만 원으로 부마 연캡쳐드와
모도 인디언스타 사이에서 태어난 수말이 낙찰됐다. 연
캡쳐드와 인디언스타 모두 미국서 20세기 최고의 씨수
말로 평가받는 스톡컷의 후손이다.

예비경주마 경매는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경매가 중단되면서 불황을 겪었다. 지난해 경매시행 정상화와 맞물려 경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거래 규모가 2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번 제주 첫 경매 성적으로 작년 동기와 비슷해 올해 경매시장에 훈풍이 예상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케이무크서 말산업 온라인 무상 교육 이벤트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 케이무크(K-MOOC) 말산업 강의 수강 이벤트를 실시한다. 케이무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운영하는 오픈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마사회는 2020년부터 케이무크를 통해 말 관련 교육콘텐츠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마사회는 4월 30일까지 이벤트 대상 강좌 중 1개 이상 이수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대상강좌는 마학과 말술 기조, 말 보전관리 및 재활승마이론 기조, 말조련 실무 기조 등 3과목이다.

마사회 유도단, 국가정원컵 유도대회 금2·은2

한국마사회 유도단은 18일 끝나는 '2023년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 유도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하림 선수가 남 일반부 60kg에서, 한주엽 선수는 남 일반부 90kg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재윤 선수는 100kg 결승 은메달을 획득했다. 세 선수는 이번 대회 입상을 통해 5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한편, 9월 항주에서 아시안게임에는 이하림, 한주엽 선수가 개인전 대표로 선발되었고, 이성호 선수는 단체전 대표로 선발됐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여성 첫 대상경주 우승 등 각종 기록
조교사 교육 받고 인생 2막 밑그림

경마는 여성의 진출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경마가 태어난 서구에서도 여성 기사나 조교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미국서는 1970년 켄터키더비 출전 최초의 여성 기사 다이앤 크럼프, 1993년 최초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 우승 여성기사 줄리 크론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에는 호주의 미셸 페인 기사가 세계 최고의 경마대회 중 하나인 멜번컵에서 대회 15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우승자로 탄생했다.

한국의 경우 1975년 3월에 기수 면허를 받은 이옥례 기수가 최초지만 6개월 만에

부상으로 은퇴하면서 본격적인 여성기수의 활약은 2000년대부터 시작됐다. 2001년 데뷔한 이금주 기수와 이신영 기수는 사실상 최초의 한국 여성기수로 꼽힌다. 이금주 기수는 은퇴 후 대학교수로, 이신영 기수는 2011년부터 첫 여성 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20년이 지난 현재 서울, 부산경남, 제주
경마장에는 총 10명 내외의 여성기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기수는 부산경남서 활동하는 김혜
선이다.

2009년 데뷔한 김혜선 기수는 2013년 여성 기수 첫 프리 선언, 2017년 여성 최초 대 상경주 우승, 2021년 300승 달성, 2022년 하루 3개 국제교류경주 우승 등 ‘여성 최



김혜선 기수

조'라는 타이틀의 각종 기록을 세웠다. 덕분에 '여자 경마 대통령', '경마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 특히 2017년 코리안 오크스 대상경주에서 여성 최초로 우승할 때는 단승 56배, 복승 475배, 삼복승 1만 7274배의 고액 배당을 터트려 얼마나 어려운 경주를 승리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김혜선 기수는 또한 부산경마 1호 기수 부부이다. 그는 2019년 6년 후배이자 8살 연하인 박재이 기수와 결혼했다. 김혜선 기

수는 결혼 이후에도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결혼 이듬해인 2020년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 7개월 만에 경주로써 복귀해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슬하에 4살짜리 아들이 있는 위강맘이지만, 김혜선 기수의 최근 1년간 성적을 보면 1년째 기수 중 다승 7위(40승) 및 승률 7위(11.4%)로 탁월하다. 올해는 승률이 16.1%(부경 3위)에 달한다.

올해도 승승장구하던 김해선 기수는 2월 초부터 한동안 경마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교사로서 인생 2막에 도전하기 위해 활동을 잠시 중지하고 조교사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들과 함께 할 소중한 시간이 겹쳤다. 김해선 기수는 “내가 여영이라는 게 부각되기 보다는 그저 기수로 복리며 차별 없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김재범 기자

[illegible][illegible]

주말 프로야구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시합경기

18일	KT	〈대구〉	삼성	LG	〈사직〉	롯데
	오후1시, SPOTV2			오후1시, SPOTV		
	두산	〈광주〉	KIA	SSG	〈창원〉	NC
	오후1시, MBC SPORTS+			오후1시, KBS N SPORTS		
19일	키움	〈대전〉	한화			
	오후1시					
	KT	〈대구〉	삼성	LG	〈사직〉	롯데
	오후1시, SPOTV2			오후1시, SPOTV		
19일	두산	〈광주〉	KIA	SSG	〈창원〉	NC
	오후1시, MBC SPORTS+			오후1시		
	키움	〈대전〉	한화			
	오후1시, SBS SPORTS					

주말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17일	한국전력	〈수원체육관〉	KB손해보험
	오후7시, SBS SPORTS		
18일	OK금융그룹	〈안산상록수〉	현대캐피탈
	오후2시, SBS SPORTS		
19일	삼성화재	〈대전충무〉	대한항공
	오후2시, KBS N SPORTS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17일	GS칼텍스 오후7시, KBS N SPORTS	〈장충체육관〉		도로공사
18일	IBK기업은행 오후4시, SBS SPORTS	〈화성종합철대〉		페퍼저축은행
19일	흥국생명 오후4시, SBS SPORTS	〈인천삼산월드〉		현대건설
주말 프로농구				
●신한은행 SOL 2022-2023 WKBL <챔프 1차전>				
19일	우리은행 오후2시25분, KBS1	〈아산이수신〉		BNK 썬
●2022-2023 SKT 에이닷컴 KBL				
17일	가스공사 <대구> 오후7시, SPOTV2	SK	현대모비스 (울산동천)	KCC
18일	삼성 <잠실새내> 오후3시, SPOTV ON	LG	DB <원주종합>	캐롯
	인삼공사 <만양새내> 오후5시, SPOTV / SPOTV ON	KT		
	삼성 <잠실새내> 오후5시, SPOTV2 / SPOTV ON	SK	KT (수원)	현대모비스
19일	LG <창원> 오후7시, SPOTV2	DB		